KIA, SK와 두번째 시범경기 '무승부'

선발 조 윌랜드 6이닝 무실점 호투 불구 3-3

첫 등판 김세현 볼넷 2 · 연속 도루 블론세이브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가 승부를 내지 못했다.

KIA와 SK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MYCAR KBO리그 SK 와이번스와의 시범경기에서 격돌했으나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KIA는 선발 조 윌랜드의 무실점 호투와 5회 터진 황윤호의 결승 2타점 3루타를 앞세워 승리하는 듯 했으나 9회 김세현이 블론세이브를 하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양 팀 선발들인 KIA 윌랜드와 SK 앙헬 산체스의 호투가 이어지며 영의 행진을 했다. 윌랜드는 6회 1사까지 단 1안타만 내주는 호투를 펼쳤다. 산체스도 4회까지 3피안타 탈삼진 4개 무실점의 역투였다. 특히 1회말 무사 3루에서 세 타자를 연속으로 삼진으로 잡는 투구를 보였다.

KIA는 1회 무사 3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다 5회 득점을 올렸다. 1사 후 최정민이 3루 실책으로 1루를 밟았고 도루를 성공시켰다. 한승택의 중견수 안타에 이어 황윤호가 좌중간을 가르는 3루타를 날려 2-0으로 리드했다. 이어 최원준이 1루수 옆으로 빠지는 적시타로 뒤를 받쳐 3-0.

반격에 나선 SK는 7회 한 방으로 따라붙었다. KIA 유승철이 올라오자 로맥이 볼넷을 골랐고 이재원이 왼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터트렸다. 몸쪽 직구를 가벼운 스윙으로 공략해 큰 타구를 만들어냈다. 9회초 고종욱이 볼넷을 골라내고 연속 도루를 성공시키고 이어진 1사 1,3루에서 허도환의 내야땅볼로 동점을 만들었다.

KIA는 윌랜드에 이어 하준영이 바통을 받아 세 타자를 상대해 1볼넷 무실점으로 막았다. 7회는 유승철이 투런포를 맞고 실점했다. 좌완 이준영이 8회 아웃카운트 3개를 만들어냈다. 9회 첫 등판한 김세현은 볼넷 2개와 연속 도루를 허용하며 1실점 블론세이브를 했다.

SK는 산체스에 이어 박희수가 마운드에 올랐으나 3안타를 맞고 3실점했다. 강지광이 6회 등판해 볼넷 1개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막았다. 7회는 박정배가 등판해 2루타를 내주었으나 실점은 없었다. 8회는 서진용이 등판해 삼자범퇴로 제압했다. 9회는 김태훈이 안타를 맞고도 흔들리지 않고 세 타자를 막아냈다. 타선의 2안타 빈공은 숙제였다.

'유도 국가대표 2차 선발 · 꿈나무 평가전' 순천서 개최

2019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 및 국가대표 2차 선발전 개회식이 11일 오전 전남 순천시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다.

일반부 남녀선수 등 전국 126팀 참가…뜨거운열기

순천시청 소속 박다솔 · 강유정 · 김혜미 맹활약 기대

'제4회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유도대회'가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오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순천시유도회에서 주관하는 순천만국가정원컵 전국 유도대회는 전국에서 남녀 초·중·고, 대학, 일반부 선수와 임원 등 3000여 명이 참가했다.

11일 시작된 이 대회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과 꿈나무 선수 평가전을 겸하는 순천시의 대표적 전국 대회로, 전국 남녀 초·중등부에서 일반부까지 총 126개 팀이 참가해 유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순천시청 소속 박다솔(국가대표·52kg급), 강유정(국가대표·48kg급), 김혜미(70kg급) 선수가 출전해 맹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대회의 백미로 꼽히는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은 12일과 13일 양일간 열리며 TV 중계방송이 예정돼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선수단 환영사를 통해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유도인들의 큰잔치가 순천에서 열려 기쁘다"며 "선수 개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고 부상 없는 안전한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박석민 돌아오니, 나성범 부상"

안타까운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의 '완전체' 구성이 쉽지 않다. 박석민이 부상을 털고 1군에 합류하자 중심타자 나성범이 부상으로 이탈했다.

NC는 "박석민이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부터 N팀(1군) 선수단에 합류한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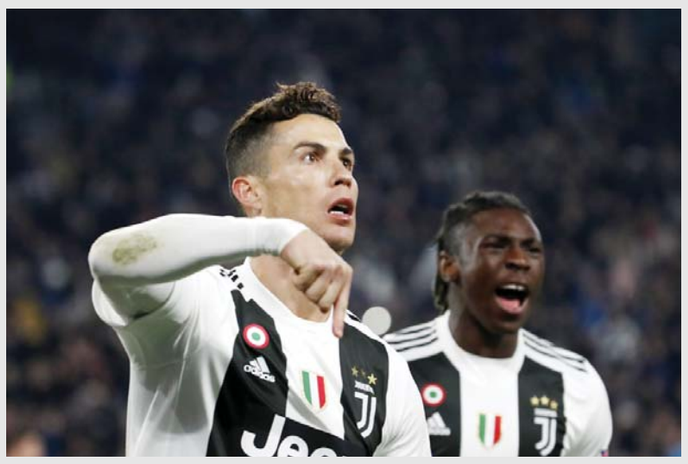
박석민은 지난해 10월 오른 팔꿈치 뼛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다. 지난달 중순부터 대만 퓨처스 캠프에서 몸을 만든 그는 이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나성범의 부상이다. NC는 "나성범이 MRI 검진 결과 좌측 내복사근 파열 진단을 받았다. 재활에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나성범은 12일 상동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시범경기 중 두 번째 타석에서 스윙을 한 뒤 허리 뒷부분에 불편을 느껴 교체됐다.

3주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상 개막전 엔트리 승선도 어려워졌다. 나성범은 지난해 전 경기(144)를 뛰며 타율 0.318, 23홈런 91타점을 올렸다. 팀의 중심타자인 나성범이 빠져나가면서 NC의 시즌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됐다.

뉴시스



호날두 "이것이 유벤투스가 나를 영입한 이유"…원맨쇼

UEFA 챔스리그 16강 2차전서 아틀레티코에 3-0 勝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를 위한 밤이었다. 호날두가 원맨쇼로 유벤투스를 기사회생시켰다.

유벤투스는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에게 3-0 승리를 거뒀다.

원정 1차전 0-2 패배로 탈락 위기에 몰린 유벤투스는 90분 간 최소 2골이 필요했다. 1골이라도 내줄 경우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4골을 넣어야 했다. 아무리 유벤투스여도 최근 5경기 무실점을 기록 중인 아틀레티코 수비진을 뚫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유벤투스에는 호날두가 있었다. 초반부터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기회를 창출하던 호날두는 전반 27분 페데리코 베르나르데스키의 크로스를 머리로 받아 넣어 득점에 성공했다.

호날두의 원맨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반 4분 동점골 역시 그의 몫이었다. 주앙 칸셀루의 크로스에 헤더로 연결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골키퍼 얀 오블락이 몸을 던져 막았지만 주심은 공이 골 라인을 통과했다고 선언했다. 스코어는 2-0.

호날두는 후반 41분 베르나르데스키가 얻은 페널티킥을 차 넣어 3-0을 만들었다. 8강행의 주인공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바뀐 순간이다.

경기 후 호날두는 스카이이탈리아와 인터뷰에서 "특별한 밤이 돼야 했고, 그렇게 됐다. 단지 골을 넣는 것뿐 아니라 우리 팀 전체가 그래야 했다"며 긴장 속의 90분을 돌아봤다.

"이것이 유벤투스가 나와 계약을 맺은 이유일 것이다. 마법 같은 밤이었다"면서 "아직 이룬 것은 아무 것도 없지만,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매우 어려운 상대였지만,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 나설 자격을 입증했다"고 보탰다. 호날두는 지난 여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를 떠나 유벤투스로 이적했다.

철벽 수비로 빛나는 조연이 된 레오나르도 보누치는 "1차전 이후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우리는 늘 그랬듯 필드에서 보여줬다"고 자부했다.

마시밀리아노 알레그리 유벤투스 감독은 "시원하고 침착했던 경기였다"면서 "우리는 균형을 잡으면서 그들을 압박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을 해냈다"며 기뻐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 "우리는 우리의 플레이를 위해 노력했다. 전반전엔 괜찮았는데 후반에는 어떤 것도 만들지 못했다"고 곱씹었다. 호날두에게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한편 호날두는 챔스리그 통산 124골로 이 부문 1위를 질주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창단 후 지금까지 넣은 118골보다 6골 많다.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77경기 77공격 포인트(63골 14도움)라는 경이적인 기록도 이어갔다.

뉴시스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온천, 참새미골, 화엄사, 섬진강, 운조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가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